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분석: 학교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주연** · 이지혜***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매개효과가 학교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에 참여한 고등학생 8,36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고등학생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확인했고, 추가적인 단계로 학교 유형(일반계, 특성화, 특수목적, 예체능)마다 별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습동기 및 도전정신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고등학생 전체 표본을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학교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매개효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도전정신이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일반계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 미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도전정신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 유형별로 도전정신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는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고등학생,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도전정신, 매개효과, 학교유형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8070203).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leeji@jnu.ac.kr

I. 서 론

진로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과정이며, 개인은 진로를 탐색해 나가면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중 청소년기 진로발달 과정은 이후 전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밑바탕이 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적응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Skorikov & Vondracek, 2007),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활동과 탐색을 통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고, 성인이 되어 마주하게 될 진로선택 장면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류재운, 이유경, 2012).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찾고, 그것을 직업세계와 연관 짓는 탐색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진로탐색을 촉진하는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이 성인이 되어 직업시장에 진입했을 때에 진로 포부를 갖게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돕고 적절한 진로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선곡유화, 임현정, 서우석, 2020). 특히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지속적인 취업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잘 안착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능동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선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한다(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직접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개발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김소라, 문승태, 2017). 현대사회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직업세계의 변화도 이해하여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파악하고 쌓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고등학생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계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부는 고등학생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목표 설정과 정보 탐색으로 미래의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76조의3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율성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반고등학교는 다른 유형의 학교와 달리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이 비슷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이 목적인 고등학교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제91조).

여기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종류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어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체능고등학교는 예술 및 체육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에 대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학교 유형별로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의 고등학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간주할 수 있다(박자경, 최수정, 2020).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이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현실적으로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학입시 준비에 치중해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한겨레, 2019; 매일경제, 2020). 한편,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예체능고등학교는 전문적인 예술 및 체육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김경화, 2012). 그래서 예체능고등학교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학과 공부와 동시에 실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 대입보다는 전문예술인 양성에 초점을 두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정은, 2019; 한정현, 조현희, 2018).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예체능고등학교를 타 특수목적고등학교들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을 일반계고, 특성화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목고(과학고·국제고·외고), 예체능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

를 진행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별로 진로개발역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동기를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진로개발과정에서 진학 및 취업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가 학업성취이기 때문에(조윤희, 정진철, 문명, 2013) 고등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은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동기는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며,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포부와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드는 변인이므로(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습동기가 도전정신을 경로로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해당 매개효과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유형별로 결과를 비교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이 상황에 맞추어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임효신, 정철영, 2015). 여기서 진로개발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그리고 역량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복잡한 요구를 내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조영아, 정철영, 2013). 이렇게 진로개발과 역량의 의미가 합쳐져 만들어진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교육의 목표로 달성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며, 무엇보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의 정의와 개념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성희와 성은모(2017)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요인을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를 연구했다. 그리고 임효신과 정철영(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의 영역을 자기관리, 진로정보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로 간주하고, 각 영역에 2~3개 정도의 세부적인 하위요인을 만들었다. 교육부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9)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요인이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의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맞춰 하위요인을 구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개념구성을 보면, 공통으로 진로정보 탐색과 다양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개인이 능동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진로개발역량의 필수적인 세부 요인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개발행동, 진로정체감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나 사회적지지,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사회적 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변인을 다룬 연구의 예로, 조영아와 정철영(2013)의 연구에서 진로개발행동이 진로개발역량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백민정과 성은모, 권경아, 유홍열(2020)의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지위가 성취 수준에 근접할수록 진로개발역량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으로 사회적 변인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류재윤과 이유경(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김소라와 문승태(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부모-자녀 대화정도와 부모의 진로교육 참여가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성심과 이기형(2020)이 진행한 연구에서 개인적 변인이 사회적 변인보다 진로개발역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개인적 변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부모지지가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적 변인보다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인보다 개인적 변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특히 개인적인 요소가 진로개발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역량은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Solberg와 동료들(2002)은 청소년이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해 진로 목표를 갖게 되면, 학업에 점차 흥미를 느끼고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학습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kos와 Niles(2007)는 청소년의 진로와 학업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 유기적 상승효과가 나타날 때,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김종운과 이태공(2015)의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개발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학습동기의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동기는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어진 과제를 학습하려는 추진력을 의미한다(이태상, 2019). 청소년에게 학습동기는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이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활동의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한다(배지희, 2017).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고 학습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김아영, 2003). 진로교육과 학습동기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Gahris, 1999; Maddy-Bernstein, 2000)가 존재하고, 이태상(2019)은 학습동기가 학교진로활동 참여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이며,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의 진로교육이 청소년에게 명료한 진로 목표를 세우도록 하며 학습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다(Solberg et al., 2002; Turner & Lapan, 2013).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학습동기가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도전정신이다. 학습동기와 도전정신의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지

만, 유사한 개념을 다룬 연구로 학습동기가 기업가정신의 구성 개념인 도전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이인수, 유연우, 2012).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며 개인의 목표의식을 높인다고 하였다(Liu & Hou, 2018; Lee & Ju, 2021).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더 도전적인 학습활동을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An(2015)의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내적, 외적 학습동기가 높은 고등학생들은 학교 내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고 하였다(Wormington, Corpus & Anderson,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습동기는 도전정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 도전정신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도전정신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기회의 탐색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우영희, 2015). 그리고 도전정신은 기업가정신(창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환경 내에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신을 의미한다(이인수, 유연우, 2012). 이러한 도전정신은 직무다양성 및 자율성과 연관이 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Kraut & Ronen, 1975).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욕구수준이 높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기에(우영희, 2015)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마주하는 학생들의 진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진로인식, 취업의지,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 관련 유사변인들과 도전정신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여럿 존재한다. 우영희(201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전정신과 리더십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이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며, 진로인식과 도전정신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도전정신을 구성요소로 갖는 창업정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진로준비행

동과 연관된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구정화, 한진수(2016)는 창업정신이 청소년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김용태(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 시켜 주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개발역량과 도전정신의 관계를 추론할 수는 있으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두 변인을 직접 다룬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의를 할 수 있다.

5. 고등학교 유형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국내의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과정 및 운영방향이 상이한데도, 국내 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다루는 진로 관련 선행논문들은 청소년을 주로 단일유형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특정 고교 유형만을 지정하여 한 연구가 많아 학교 유형별로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 중 김동심과 윤혜준(2020)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변인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4개 학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외의 선행 연구들은 특수목적고, 일반계고, 예술계고 등 연구 표본을 단일적인 고등학교 유형으로만 설정하여 해당 고등학생들의 특성을 보았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예술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류수미, 2019; 장지영,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반영하여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매개효과가 모든 학교 유형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유형별로 개별적인 매개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도전정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의 매개효과가 모든 학교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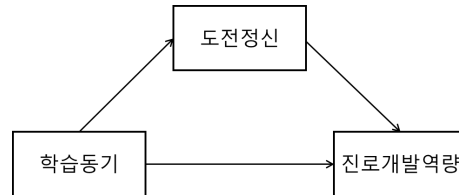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표본 설계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9년에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8,365명으로 남학생 4,617명(55.2%), 여학생 3,748명(44.8%)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설문 당시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으며, 고교 유형별로 일반계고 6,041명(72.2%), 특성화고 1,674명(20.0%), 특수목적고 388명(4.6%), 예체능 고등학교 262명(3.1%)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987명(11.8%), 경기 1,914명(22.9%), 충청 1,259명(15.1%), 전라 1,220명(14.6%), 경상 2,397명(28.7%), 강원 347명(4.1%), 제주 241명(2.9%)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2019년에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중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수준, 도전정신에 대한 인식, 총 3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째, 학습동기의 경우, 단일요인의 총 5개 문항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와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역문항 채점)”가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습동기를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 척도의 Cronbach’s α 는 .60이었다.

둘째, 진로개발역량은 단일요인의 총 21문항으로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척도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높은 점수는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셋째, 도전정신은, 단일요인의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시문항으로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정신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와 “살아가면서 도전정신은 꼭 필요하다”가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도전정신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전정신의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 및 PROCESS Macro 3.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별로 각각 신뢰도 계수인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전체 집단의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도전정신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넷째, 학습동기가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도전정신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했으며, bootstrapping 방법으로 고등학생의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유형별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은 왜도 <121, 첨도 <171 (West, Finch & Curran, 1995)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836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습동기	3.34	.66	.48	-.14
도전정신	4.10	.75	-.69	.74
진로개발역량	3.9	.73	-.26	-.09

2. 변인 간 상관분석

표 2

변인 간 상관분석 (N=8365)

		1	2	3
1. 학습동기	전체	1		
	a. 일반계고	1		
	b. 특성화고	1		
	c. 특목고	1		
	d. 예체능고	1		
2. 도전정신	전체	.22**	1	
	a. 일반계고	.24**	1	
	b. 특성화고	.21**	1	
	c. 특목고	-.01	1	
	d. 예체능고	.19**	1	
3. 진로개발역량	전체	.27**	.54**	1
	a. 일반계고	.26**	.57**	1
	b. 특성화고	.25**	.54**	1
	c. 특목고	.21**	.03	1
	d. 예체능고	.36**	.48**	1

주. ** $p < .01$, a. 일반계고($n_a=6041$), b. 특성화고($n_b=1674$), c. 특목고($n_c=388$), d. 예체능고($n_d=262$)

다음 단계로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간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학습동기는 도전정신($r=.22$, $p<.01$)과 진로개발역량($r=.2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도전정신은 진로개발역량($r=.54$,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유형별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특목고 외에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들은 학습동기와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고과 특성화고, 예체능고는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이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와 비교했을 때 예체능고는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r=.36$, $p<.01$),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다($r=.48$, $p<.01$). 다른 유형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목고는 유일하게 학습동기와 도전정신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r=-.009$, $p=.867$),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도 유의미하지 않았다($r=.028$, $p=.588$).

3.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실시를 위하여 원자료($N=8365$)에서 5000개의 표본을 무선표집으로 생성 후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 설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표 3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N=8365$)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SE</i>	β	<i>t</i>	<i>R</i> ²	<i>F</i>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30	.01	.27	25.767***	.074	663.916***
2	학습동기	도전정신	.25	.01	.22	20.506***	.048	420.512***
3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18	.01	.16	17.361***	.315	1920.594***
	도전정신		.49	.09	.50	54.256***		

주. * $p<.05$, ** $p<.01$, *** $p<.001$

두 번째 단계로 학습동기를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을 도전정신으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beta=.2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습동기와 도전정신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진로개발역량을 학습동기와 도전정신이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 8362)=1920.594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1.5%로 나타났다. 특히 매개변수인 도전정신이 포함되었을 때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27에서 .1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학습동기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도전정신은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높은 학습동기는 도전정신을 경로로 하여 진로개발역량에 간접적인 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4

도전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8365$)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학습동기→도전정신→진로개발역량	.124	.007	.111	.137

주. * $p<.05$, ** $p<.01$, *** $p<.001$

4. 고교 유형별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교 유형별로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매개분석을 세부적으로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표본에서 앞선 단계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및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에서 도전정신이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beta=.53$, $p<.001$), 학습동기도 여전히 진로개발역량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15$, $p<.001$).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총 34.2%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43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분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N=604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30	.01	.26	21.289***	.070	453.233***
2	학습동기	도전정신	.27	.01	.24	18.961***	.056	359.500***
3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15 .53	.01 .01	.14 .54	12.736*** 50.044***	.342	1572.742***

주. * $p<.05$, ** $p<.01$, *** $p<.001$

표 6

일반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6041$)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학습동기→도전정신→진로개발역량	.143	.008	.127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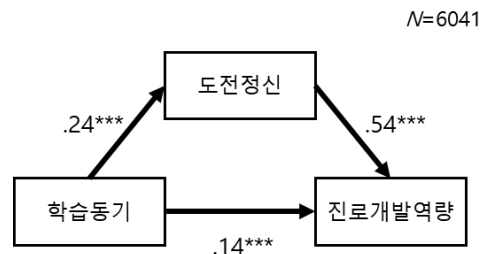
주. * $p<.05$, ** $p<.01$, *** $p<.001$ 

그림 2. 최종 매개모형(일반계 고등학생 집단)

2)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표본에서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전정신이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설명하고($\beta=.51$, $p<.001$), 학습동기의 회귀계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의미하므로($\beta=.14$, $p<.001$)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총 31.1%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33이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분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표 7

특성화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N=1674$)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SE</i>	β	<i>t</i>	R^2	<i>F</i>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30	.03	.25	10.342***	.060	106.952***
2	학습동기	도전정신	.27	.03	.21	8.7722***	.044	76.9511***
3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17 .50	.03 .02	.14 .51	6.632*** 24.674***	.311	377.308***

주. * $p<.05$, ** $p<.01$, *** $p<.001$

표 8

특성화 고등학생 집단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1674$)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학습동기→도전정신→진로개발역량	.133	.017	.101	.166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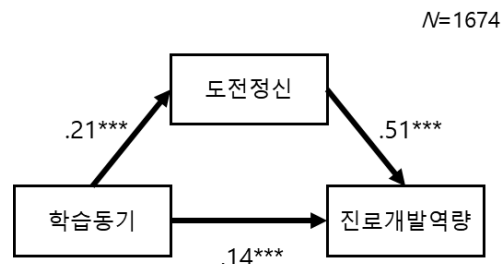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매개모형(특성화 고등학생 집단)

3)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표본에서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및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른 학교유형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beta=.21$, $p<.001$), 도전정신은 두 변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부트스트래핑 결과에서도,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특수목적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N=388$)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SE</i>	β	<i>t</i>	R^2	<i>F</i>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18	.04	.21	4.243***	.045	18.005***
2	학습동기	도전정신	-.01	.05	-.01	-.168	.00	.028
3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18 .02	.04 .04	.21 .03	4.245*** .590	.045	9.1613***

주. * $p<.05$, ** $p<.01$, *** $p<.001$

표 10

특수목적 고등학생 집단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388$)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학습동기→도전정신→진로개발역량	-.000	.003	-.007	.005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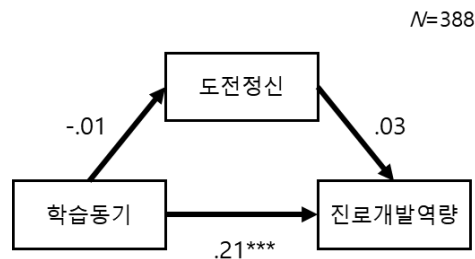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매개모형(특수목적 고등학생 집단)

4) 예술계 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 표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및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전정신은 진로개발역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43$, $p<.001$), 회귀모형에 도전정신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된 이후에도 학습동기는 진로개발역량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19$, $p<.001$).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총 30.5%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효과와 비표준화 계수는 .082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분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1

예술계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 ($N=262$)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i>B</i>	<i>SE</i>	β	<i>t</i>	R^2	<i>F</i>
1	학습동기	진로개발역량	.36	.06	.36	6.131***	.126	37.595***
2	학습동기	도전정신	.20	.06	.19	3.098**	.036	9.597***
3	학습동기 도전정신	진로개발역량	.28 .41	.05 .05	.27 .43	5.199*** 8.156***	.305	56.794***

주. * $p<.05$, ** $p<.01$, *** $p<.001$

표 12

예술계 고등학생 집단에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262$)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학습동기→도전정신→진로개발역량	.082	.040	.0170	.1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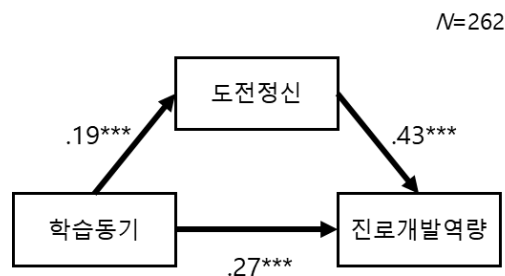
주. * $p<.05$, ** $p<.01$, *** $p<.001$ 

그림 5. 최종 매개모형(예술계 고등학생 집단)

앞선 분석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도전정신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예술계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특수목적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이 유의미하였으며, 도전정신은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 모두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학교유형에 따라 매개효과가 달리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이태상, 2019).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진로개발역량과 학습태도 및 행동 변수들의 높은 유기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장현진, 2018).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은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상담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 취업/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당면한 학업에 대해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도전정신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과 도전정신의 유의미한 관계를 바탕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진성희, 성은모, 2017).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 및 학습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유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개인·사회와 진로관리 및 학업 영역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신용주, 허균, 2019).

이를 통해 학습 및 진로에 대한 태도측면의 요인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에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도록 돕는 방식과 함께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과업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셋째, 학교 유형별로 매개효과를 비교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예술계 고등학교에서는 도전정신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도전정신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 유형에서 나타난 부분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도전정신이 진로 관련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우영희, 2015), 학습동기가 도전정신과 유사한 변인에 영향을 주고(이인수, 유연우, 2012), 학습동기와 진로개발역량이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장현진, 2018)와 일치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노민정, 유진은, 2020).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진로개발역량은 긴밀한 관계이며, 학습동기도 두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전정신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특목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은 학습동기 또는 진로개발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특목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등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을 위해 계획을 세워 중학교 재학 내내 준비한다(이유진, 2019). 또한 진로에 대한 변인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분석한 연구를 확인하면, 특목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개인적 변인보다 주로 사회적 측면의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정현, 조현희, 2018).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 유형과 비교했을 때, 다른 변인보다 학습동기가 진로성숙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특목고는 본래 운영 목적과 달리 대학입시에 치중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다(YTN, 2019; e-대학저널, 2019). 이를 통해 특목고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학습에 대한 변인에 강한 영향을 받고,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진로개발역량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목고는 진로개발역량에 개인적 변인의 영향이 약하고, 학습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유일하게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특목고 학생들은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한 선발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므로 학습을 위한 동기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높은 학업성취를 통해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도전정신보다는 학업자체에 몰입할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도전정신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도전정신이 학습동기가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학교 유형별로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여 다르게 나타나는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성과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자료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편중되어 수집되었기 때문에 학교 유형별 차이를 고등학생 전체에게 대입하여 해석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학교유형 별로 비슷한 개수의 표본을 수집하여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학교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인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방법을 사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학교 유형별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도전정신은 신뢰도가 .94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패널 특성상 문항의 개수가 4개로 제한되어 있어 도전정신의 개념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여 도전정신의 개념을 다른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측정도구의 차이로 인해 오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도전정신을 발휘하게끔 하는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예: 나도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전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맥락을 가정하고 해당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보다 여러 문항으로 도전정신의 개념을 충분히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9년에 수집된 단일 시점의 횡단데이터로, 변

인간 인과관계의 해석이 제한된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간의 관련성에 관해 설명할 수 있지만 학습동기 또는 도전정신의 향상이 장기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추후 본 패널과 유사한 자료의 종단연구를 통하여 도전정신의 매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면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e-대학저널 (2019.1.8). 특목고·자사고 중심 고교서열화 ‘심각’.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91>에서 2021년 2월 6일 인출.
- YTN (2019.11.7). [더뉴스-더인터뷰] ‘서열화’ 확인한 정부 “특목고 일괄 폐지”.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071338127201에서 2021년 2월 6일 인출.
- 교육부 (201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세종: 교육부.
- 구정화, 한진수 (2016). 청소년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23(2), 1-29.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25.). 법령 정보 검색. www.law.go.kr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 김경화 (2012). **학교 유형에 따른 여고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적 자아개념과 사회성의 차이**.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심, 윤혜준 (2020).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변인 분석 및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중등교육연구**, 68(2), 333-359.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아영 (2003). **학습동기 검사**.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doi:10.16972/apjbve.12.2.201705.13
- 김종운, 이태곤 (2015).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225-244.
- 노민정, 유진은 (2020). Group Mnet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변수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23(2), 83-109.
- 류수미 (2019).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재운, 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매일경제 (2020.11.11). 고교진학 앞둔 중3의 고민…“일반고? 특목고? 내게 맞는 학교는?”.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0/11/1155617/>에서 2021년 2월 2일 인출.
- 박자경, 최수정 (2020).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과 학생 및 학교 변인의 위계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1), 21-42. doi:10.23840/agehrd.2020.52.1.21
- 배지희 (2017). **아동이 지각한 부모 학습관여가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민정, 성은모, 권경아, 유홍열 (2020).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른 진로개발 역량의 차이 분석. **직업교육연구**, 39(5), 173-198. doi:10.37210/JVER..39.5.173
- 선곡유화, 임현정, 서우석 (2020).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교육 경험, 부모지지 및 자기주도 학습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3(2), 133-155.
- 신용주, 허균 (2019). 일반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구성요인 간에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2(4), 249-262.
- 우영희 (2015).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심, 이기형 (2020). 고등학생의 부모지지, 교사관계, 진로교육활동만족도, 자기 효능감, 진로개발역량 간의 구조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3), 53-77. doi:10.34226/gcl.2020.10.3.53
- 이유건 (2019). 중학교 시기 전반에 걸친 특목고 진학 계획 및 진학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9(2), 235-265. doi:10.32465/ksocio.2019.29.2.008
- 이인수, 유연우 (2012). 학습동기 및 학습의자가 컨설턴트의 기업가 정신과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5), 89-103. doi:10.14400/jdpm.2012.10.5.089
- 이태상 (2019). 청소년의 학교진로활동 참여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서 학습 동기의 매개 효과. **상업교육연구**, 33(6), 1-18. doi:10.34274/krabe.2019.33.6.001
- 임효신, 정철영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28(4), 107-137.
-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연구. **교육실천연구**, 10(1), 1-23.

- 장지영 (2015).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현진 (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1), 21-42. doi:10.32341/JCER.2018.03.31.1.21
- 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doi:10.23840/AGEHRD.2013.45.4.53
- 조운형, 정진철, 문명 (2013). 개인-학교, 개인-전공 적합성과 취업가능성,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멘토링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3), 749-780.
- 조정은 (2019). 예술고등학교 학생의 학교만족도 분석. **음악교육공학**, 40, 111-130.
- 진성희, 성은모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 연구**, 30(1), 67-90.
- 한겨레 (2019.10.30). “자사고·외고는 입시 특권학교…대학이 우릴 우대했다 믿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5093.html>에서 2021년 2월 2일 인출.
- 한정현, 조현희 (2018).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 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1(3), 1-38. doi:10.36907/krivet.2018.21.3.1
- Akos, P., & Niles, S. (2007). Promoting educational and career planning in schools. In B. T. Erford (Eds.), *Transforming the School Counseling Profession* (2nd ed. pp. 195-209). New Jersey: Pearson.
- An, B. P. (2015). The role of academic motivation and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ual enroll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6(1), 98-126. doi:10.1080/00221546.2015.1177735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10.1037/0022-3514.51.6.1173
- Gahr, C. (1999). *Ohio's accountability system for career development: How do we know we make a differ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429, 171.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 Kraut, A. I., & Ronen, S. (1975). Validity of Job Facet Importance: A multinational multicriteria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671-677. doi:10.1037/0021-9010.60.6.671
- Liu, Y., & Hou, S. (2018). Potenti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9(1), 38-55. doi:10.1177/0143034317710574
- Lee, Y. K., & Ju, U. (2021). Joint Trajectories of Extrinsic Motivation and Competence Beliefs: A Parallel-Process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5, Article 101944. doi:10.1016/j.cedpsych.2021.101944
- Maddy-Bernstein, C. (2000). Career development issues affecting secondary schools. *The Highlight Zone: Research at Work*, 1.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s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Turner, S. L., & Lapan, R. T. (2013). Promotion of career awareness, development, and school succ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539-564). Hoboken, NJ: Wiley & Sons.
- Skorikov, V., & Vondracek, F. W. (2007). Positive career orientation as an inhibitor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30(1), 131-146. doi:10.1016/j.adolescence.2006.02.004
- Solberg, V. S., Howard, K. A., Blustein, D. L., & Close, W. (2002). Career development in the schools: Connecting school-to-work-to-lif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5), 705-725. doi:10.1177/001100000230500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CA: Sage Publications, Inc.
- Wormington, S. V., Corpus, J. H., & Anderson, K. G. (2012). A person-centered investigation of academic motivation and its correlates in high school.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4), 429-438. doi:10.1016/j.lindif.2012.03.004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challenge spi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chool types

Jung, JooYun*, Lee, Ji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challenge spi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motiva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verify whether the mediation effect appears regardless of school typ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8,365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Career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2019)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using SPSS 23.0,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whole student sample. Next, additiona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separately for each type of school (general, vocational, specialized, and arts high school).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all variables. The mediation effect of challenge spirit applied to the whole sample, but differed according to school types. In case of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challenge spiri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 comparatively smaller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among the arts high school sample. The media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e specialized high school popula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impact of challenge spirit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ccording to high school types. Also, educational suggestions were given on considering student characteristics in career guidance.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challenge spiri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mediation effect, school types

투고일: 2020. 12. 7, 심사일: 2021. 2. 8, 심사완료일: 2021. 2. 19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Master’s student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